

발의안 제37호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라벨 부착. 주민발의 법안.

★ 발의안 제37호에 대한 찬성론 ★

발의안 제37호에 찬성투표합니다—여러분은 여러분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발의안 제37호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여러분은 여러분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음식이 유전자 변형 방식을 사용해 만들어졌는지 알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식품의 정확한 라벨 부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식품 라벨에는 해당 제품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일부 의사 및 과학자들이 알레르기 및 기타 중요한 건강 상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식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식품에는 라벨에 영양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발의안 제37호를 통해, 우리는 각 식품이 유전자 변형 식품인지 즉, 각 식품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그 외 식물 또는 동물로부터 가져온 유전자를 사용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변형된 DNA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쉽게 기재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유럽 대부분의 국가, 일본,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40여개 국가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미국인들에게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한 장기적 건강 연구는 전무합니다. 여러분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구입하든 않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무엇을 구입하는지 알고 가족의 건강으로 도박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벨 부착은 우리가 우리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줍니다.

발의안 제37호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라벨에 정보를 기재하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식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표시하는 새 라벨을 인쇄하거나, 또는 유전자 변형 기법을 사용하

제조한 식품 판매를 원치 않을 경우 제품을 변경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발의안 제37호는 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해 "천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대형 식품 제조업체와 농화학 기업들, 해당 기업의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살충제의 영향에 대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식품의 칼로리, 또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 또는 염분량 등, 식품 라벨에 다른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려고 버티던 바로 그 기업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유전자 변형에 대해 우리에게 은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섭취하고자 하든 않든, **발의안 제37호**는 여러분께 여러분 가족이 먹을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립니다.** 대형 화학 회사들이 여러분 대신 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 가족 단위 농장주, 의사, 간호사, 영양사, 소기업가, 그리고 거의 백만 명에 가까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미 나서서 여러분께 우리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를 드리기 위한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www.CARightToKnow.org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시거나 동참해 주십시오.

발의안 제37호에 대한 투표를 하실 때, 한 가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는가?** 답은 발의안 제37호에 대한 찬성 투표입니다.

www.CARightToKnow.org

DR. MICHELLE PERRO, 소아과 전문의
REBECCA SPECTOR, 서부 해안 지역 이사
 식품안전센터
GRANT LUNDBERG, 최고 경영자
 Lundberg 가족 단위 농장

★ 발의안 제37호에 대한 찬성론에 대한 반론 ★

제37호의 소위 "알 권리" 규정은 기만적인 술법으로, 특정 이익집단의 면제와 소비자 및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숨은 비용들로 가득합니다.

제37호는 우유, 치즈, 육류를 라벨 부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맥주, 포도주, 주류, 식당 판매 음식, 그리고 그 외 유전자 변형 식품(GE) 원료가 들어 있는 음식을 제외시킵니다.

실제로, 제37호 선거 운동의 자금을 대는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소비하는 식품의 삼분의 이를 제외시킵니다.**

새로운 갈취 소송을 초래할 것입니다

제37호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소송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변호사들이 위반이나 손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 없이도 농부, 식료품상, 식품 회사 등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갈취 소송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듭니다.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400여 개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GE 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세계보건기구, 전미 과학 아카데미, 24명의 노벨상 수상 과학자,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주요 보건 기구 및 단체들이 모두 동의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는 데 대한

과학적인 정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더 높은 소비자 및 납세자 비용 부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보편적인 식품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더 고가의 원료로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37호로 인해 평균 캘리포니아 가구의 연간 식품비 지출 부담이 수백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주 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는 제37호에 따른 행정 절차와 법정 소송으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제37호의 가장 큰 자금 후원자 조차 "고비용의 물류적 혼란 상황이 초래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7호는 기만적인 고비용 수법입니다. 반대 투표합니다!

www.NoProp37.com

JONNALEE HENDERSON

캘리포니아 농업협회

DR. HENRY I. MILLER, 창립 이사

FDA 식품의약국 생명기술실(Office of Biotechnology)

TOM HUDSON, 전무이사

캘리포니아 납세자 보호위원회

★ 발의안 제37호에 대한 반대론 ★

발의안 제37호는 제창자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단순한 법안이 아닙니다. 일체 건강이나 안전 상 혜택은 없이, 정부 관료적 절차와 납세자 비용을 추가하고, 사소한 소송을 새롭게 만들고, 식비 지출을 수십억 늘리게 되는 기만적이고,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식품 라벨 부착 수법입니다. 게다가, 특정 이익집단의 면제 조항으로 가득합니다.

발의안 제37호는 과학과 상충됩니다

유전자 변형(GE)이라고도 불리는 생명기술은 질병과 병충해에 잘 견디고 살충제를 적게 사용해도 되는 다양한 종의 옥수수, 대두 및 기타 작물들을 재배하는 데 거의 20년 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천 종의 보편적 식품이 생명기술 작물에서 나온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발의안 제37호는 별도 라벨을 부착하거나 더 고비용의 원료로 다시 만들지 않을 경우, 이처럼 완벽하게 안전한 식품을 캘리포니아 내에서 금지하게 됩니다.

미국 FDA는 이같은 라벨 부착 정책을 "기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유수의 과학-의학 기구 및 단체도 생명기술 식품은 안전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 전미 과학 아카데미
- 미국 건강과학 위원회
- 영양과 식이요법학 아카데미
- 세계보건기구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는 데 대한 과학적인 정당성은 전혀 없습니다."—미국 의사협회, 2012년 6월

발의안 제37호: 특정 이익집단의 면제 조항으로 가득합니다

"발의안 제37호의 자의적인 규정과 면제 조항은 소비자가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Dr. Christine Bruhn, 식품공학부, UC 데이비스

제37호는 모순적이고,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면제 조항들로 가득합니다. 대두 우유에 대해서는 별도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면서 우유와 낙농 제품은 제외시킵니다. 과일 주스는 라벨 부착이 의무지만 알코올류는 예외입니다. 육류가 들어 있는 애완동물 사료는 라벨 부착이 의무지만 사람이 먹는 육류는 예외입니다.

중국이나 그 외 다른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의 경우 판매자가 단순히 제품이 "GE 불포함"이라고 주장하면 예외 대상이 됩니다. 비양심적인 외국 기업은 현 제도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7호는 갈취 소송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변호사들이 일체의 위해 입증 없이 가족 단위 농장이나 식료품상을 고소할 수도도록 함으로써 "헤드헌터 소송"이라는 새로운 소송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제37호는 변호사들이 갈취 소송을 이용해 가족 단위 농장이나 식료품상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법원, 기업 및 납세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 부담을 초래합니다." —법률 소송 남용을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시민 모임

발의안 제37호: 관료적 절차와 납세자 비용 증가

제37호는 주정부 관료들이 수만 가지의 식품 라벨을 감시함으로써 복잡한 요건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료적 절차와 소송에 몇백만 달러가 지출될지에 대한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백지 수표인 셈입니다.

발의안 제37호는 식비 지출 증가를 의미합니다

제37호는 농장과 식품 업체에 캘리포니아 내 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라벨을 부착하거나, 더 고가의 비 GE 또는 유기농 원료로 바꾸도록 강제합니다.

각종 경제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해 평균 가정의 식비가 연간 수백 달러 늘어날 것이요 입증되고 있으며, 이는 **숨은 식품 세금**으로 특히 가장 형편이 어려운 노인 가구 및 저소득 가구에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37호는 가족 단위 농장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80,000 농장주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농업협회

과학자, 의학 전문가, 가족 단위 농장주, 납세자 권익 옹호자, 소기업에 동참하십시오.

제37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이 기만적인 고비용 식품 라벨 부착 술수를 막아야 합니다.

www.NoProp37.com

DR. BOB GOLDBERG, 회원

전미 과학 아카데미

JAMIE JOHANSSON

캘리포니아주 가족 단위 농장주

BETTY JO TOCCOLI, 회장

캘리포니아 소기업 협회

★ 발의안 제37호에 대한 반대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7호—내가 먹는 음식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 권리에 "찬성"하십시오.

발의안 제37호는 단순히 내가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식품 라벨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37호는 여러분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부 공무원, 정치인 또는 농화학 기업은 절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유전자 변형 재료가 들어 있는지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 시행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유럽, 호주, 일본, 그리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등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만큼 식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려 주지만 하면 됩니다.

발의안 제37호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농업 기업과 농화학 기업들과 해당 기업의 로비스트들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합니다. 발의안 제37호 하에서는, 지금 드시는 음식을 계속 구입하실 수도 있고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발의안 제37호는 식비나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식품 업체들은 라벨을 정기적으로 재인쇄하고, 기간적으로 합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발의안 제37호때문에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7호는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FDA는, "유전자 변형된 식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식품 라벨 없이는 여러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식품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 식품 업체들은 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유전자 변형 식품의 건강 상 영향에 대해 과학적 연구 결과가 불확실하고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라벨 부착은 가족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37호에 찬성하십시오.

www.Carighttoknow.org

JAMIE COURT, 회장

소비자 감시 단체

JIM COCHRAN, 총지배인

Swanton 베리 농장

DR. MARCIA ISHII-EITEMAN, 수석 과학자

국제농약행동당